

초등학교 예비소집...“연락 안되면 수사 의뢰”

오늘 세종시부터 시작

광주 1월 3·6일, 전남 1월 7일

취학 대상 아동 소재 집중점검

질병 등 취학 어려우면 사전 신청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교·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에 맞춰 소재·안전 점검 점검에 나선다.

광주 내년 1월 3일(금)과 1월 6일(월), 전남은 1월 7일(화)이 예비소집일이다.

불가피하게 참여가 어렵다면 예비소집일 이전 학교에 문의한 뒤 개별 방문 등 별도 등록절차를 밟으면 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오는 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 학교의 정확한 예비소집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취학통지서로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나 보호하는 아동이 입학하는 학교의 예비소집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아동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은 우선 연락, 가정 방문, 등교 요청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는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가 있는 가정은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주 방문하는

지역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는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크메르어·미얀마어·몽골어·아랍어·프랑스어 등 13개 언어로 배포한다. 교육부는 2016년 행복 아동 대책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과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일에는 취학 등록과 함께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면서 “예비 학부모들은 반드시 자녀와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온 누리에 평화를...성탄대축일미사 25일 전주교 광주대교구 임동주교좌 성당에서 신자들이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하는 성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달뜨기 07:27
해질 17:27 달질 17:29

오락가락 겨울비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가뭇거리고비 4/6	보성	가뭇거리고비 2/7
목포	가뭇거리고비 3/5	순천	가뭇거리고비 3/9
여수	가뭇거리고비 7/9	영광	가뭇거리고비 2/5
나주	가뭇거리고비 3/6	진도	가뭇거리고비 4/7
완도	가뭇거리고비 5/8	전주	가뭇거리고비 1/6
구례	가뭇거리고비 1/8	군산	가뭇거리고비 2/5
강진	가뭇거리고비 4/7	남원	가뭇거리고비 1/5
해남	가뭇거리고비 3/7	흑산도	가뭇거리고비 6/8
장성	가뭇거리고비 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1.0~3.0	
	면바다(북)	북~북동 1.0~2.5	북서~북 2.0~4.0	
	면바다(남)	북~북동 1.0~2.5	북서~북 2.0~4.0	
남해서부	안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0.5~2.0	
	면바다(서)	북~북동 1.5~3.0	북서~북 2.0~4.0	
	면바다(동)	북~북동 1.0~2.5	북서~북 2.0~3.0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뇌졸중
나쁨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05 19:50	01:43 14:34
여수	02:39 15:26	09:25 21:20

◇주간 날씨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1/1(수)	2(목)
☁	☀	☁	☁	☀	☀	☀
0/6	-1/9	2/8	6/11	-2/3	-4/6	0/7

광주·전남 오늘 겨울비...“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

광주·전남지역에 5mm 이상 겨울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새벽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도로 결빙에 따른 ‘블랙아이스’ 등이 우려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과의 온도차(해기차)에 의해 만들어

진 구름대 영향으로 27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26일 밤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10mm 수준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얼어 도로 곳곳에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교가·교표 바꿔”...광주 교육 현장은 친일잔재 청산중

광덕·대동·광주일고 이어 금호중앙여고 새 교가 발표

광주 교육현장에서 교가, 교표 등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금호중앙여고와 금호중앙중은 26일 금호중앙중 축호관에서 새 교가를 발표한다. 제작 경과보고, 작사·작곡가 공로패 수여에 이어 합창, 오카리나 연주 등으로 새 교가를 알린다.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의 기존 교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은상 시인은 친일 행적 논란이 있었으며 김동진 작곡가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숫아라 산맥들이 자유의 이름으로’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새 교가는 이용현 작사기와 김성훈 작곡가가 만들었다. 학교 법인 축호학원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의 교육 현장 친일잔재 조사·청산 사업 설명회 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새 교가 제작에 들어갔다. 광주에서는 올해에만 문흥초, 우산초, 양산초, 월곡초, 중앙초, 화정초, 운암초, 제석초, 효덕초, 하남중 등에서 친일양식 교표를 개정했다.

광덕중·고, 대동고, 광주일고는 교가를 새로 만들었으며 임곡중, 광일고는 일본 음계, 7.5조 율격, 가사를 바꿨다. 송일고, 계림초 등에서도 교가를 바꾸고 있으며 학운초, 동운초, 무등중 등은 교표를 교체 중이다. 평동초, 광주일고, 광주자연과학고에 있는 일제 총환탑 양식 석물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석물에는 안내문(단죄문)을 설치했다. 시교육청은 26일 웨딩그룹 리더스 광주에서 교육 현장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 성과 보고회를 연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에어프라이어 감자튀김

노란색 될 때까지 조리해야”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200도 이상 고온에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조리할 경우 유해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다양 생성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에어프라이어 제조사 10개 업체가 자체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 결과 냉동감자를 200도 이상에서 제품별 사용설명서의 최대 조리시간, 최대 조리량대로 조리할 경우 재료의 양이 줄면 감자튀김의 색은 진해지고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대 내년부터 전교생에 AI 교육한다

교육과정 AI중심 전면 개편

호남대학교가 ‘전교생 AI(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AI를 이공계는 물론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미래의 언어’로 규정, 2020학년도부터 전교생에게 AI를 가르친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AI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것은 국내 대학 중 호남대학교가 최초이다. 교육부 선정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인 호남대는 정부의 ‘AI 국가전략’, 광주시의 ‘AI중심도시 만들기’에 맞춰

AI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 공하는 한편, AI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을 제고 등을 통해 ‘국가대표 AI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호남대는 지난 3월부터 ‘AI중심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 협의회’를 운영해 ▲AI기초융합 교양과목 개발 ▲각 전공 교육과정에 AI 교과목의 무 개설 ▲모든 학과 1개 이상 AI연계 (융합)전공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 교육과정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